

능별 직장제는 시간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설정된 과업에 근거하여 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 「論衡」에 나타난 王充의 自然觀

서울대 李文揆

### I

중국의 고대과학기술은 春秋戰國시기에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漢代에 그 성과가 집대성되었다. 한대에는 종지와 자석이 발명되었고 水利灌溉, 冶鍊, 천체관측 등에서 커다란 기술상의 진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 산학, 의학, 농업 등 중국 전통과학의 대표적인 분야에서 그 체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학기술상의 성과는 통일된 漢帝國의 중앙집권적인 사회·경제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와 더불어 자연세계에 대한 한대인의 관심과 이해가 보다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연세계에 있어서 한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였던 주제는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것과, 災異와 祥瑞를 중심으로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대에는 天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여 曆法이나 천체구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天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대인들은 陰陽五行이나 易의 체계 등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세계를 표현하였으며, 災異說이나 讖緯說 등으로 구체적인 자연현상을 해석하였다. 한편, 天을 인간과 만물의 근원이며 동시에 자연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나타난 天人感應說은 漢初의 董仲舒에

의해 완성되어 이후 한대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물론 천인감응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중 王充(字: 仲任, 27-100年頃, 會稽上虞縣生)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있었던 자연세계에 대한 주술적이고 신비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자연현상을 인간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論衡」을 통해 나타난 왕충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왕충은 '異人'으로, 「논형」은 '異書'로 불리웠다.

왕충과 「논형」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역사상 다양한 평가가 있어왔는데, 이것은 왕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때문이기도 하고, 「논형」 자체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세계에 대한 왕충의 태도에 대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몇가지 평가를 살펴보면, 그의 자연관을 '自然主義'라고 보는 것과 '懷疑的 理性主義'라고 보는 것, '唯物主義'라고 보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일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자연세계에 대한 그의 이해를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세계에 대한 왕충의 태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그의 자연관을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왕충이 사용했던 중요한 개념들인 陰陽·五行, 氣, 天, "自然"이란 개념을 검토해보고, 이어서 천체의 구조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자연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한 새로운 天人關係를 살펴볼 것이다.

### II

陰陽·五行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대에 이르면 음양오행이 儒家思想과 결합하여 陰陽五行說이라는 하나의 사상체계를

형성하면서 人間事 및 자연세계 전체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 개념이 되었다. 왕충의 음양오행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한대인들의 음양오행관과 유사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자연세계를 그 속성에 따라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그리고 陰과 陽 사이의 조화를 중시하였으며 오행이 서로 相生하고 相勝한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음양오행에 대한 왕충의 태도는 한대인들과 다른 점도 있어서, 그는 음양오행으로 모든 구체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왕충은 음양으로 해가 출몰하는 현상이나 계절에 따라 낮의 길이가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부정하였으며, 인간의 善惡을 음양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행과 관련해서도 왕충은 오행상승의 원리로 동물들의 실제 먹이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행상승의 원리만을 고집하면서 상식적인 이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한편 한대에는 음양오행이 氣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용되었는데, 왕충도 氣를 음양오행과 연결하여 받아들였다. 그는 氣를 사용하여 만물의 생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하늘이 운행함에 따라 나오는 氣가 땅에 베풀어짐으로써 만물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 때 한가지 독특한 점은 그가 天地의 생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맑고 가벼운 氣가 天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氣가 地가 되었다는 전통적인 우주생성론과는 다른 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왕충은 “물이 응결하여 얼음이 되듯이 氣가 응결하여 사람이 된다”고 하여 인간에게도 氣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나아가 生死와 壽命과 같은 생명현상도 氣로 설명하였다.

天에 대한 한대인들의 관념은 크게 보아 그것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와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자연세계 전체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천인감응설과 같은 체계는 天을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나타난 것이고, 한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천체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天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왕충은 天의 초자연성을 부정하고 天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논형」에 나타난 天이란 개념을 살펴보면, 그것은 좁게는 “푸른 하늘”이나 천체를 뜻하였으며, 넓게는 자연세계 전체를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天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왕충은 天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지 않은 自然無爲한 존재라는 것과, 만물이 天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천인감응설을 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自然”이란 개념이 사용되었다. 물론 그가 사용한 “自然”이란 개념에는 오늘날과 같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이란 의미는 없었다. 그것은 萬物의 自發性과 天의 無目的性을 뜻하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 III

天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왕충은 「논형」의 “談天”과 “說日”編을 통해서 천체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천체의 구조에 대한 그의 논의는 天이 氣가 아니고 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1) 共工이 不周山을 들이받아 하늘의 기둥(天柱)을 무너뜨리고 여와가 돌을 가지고 天을 메꾸었다는 神話, (2) 天에 里數와 度數가 있다는 것, (3) 天에 28개의 별자리가 있다는 것, (4) 해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등을 이용하여 天이 氣가 아니고 體라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왕충은 天을 體라고 여겼으므로 天을 氣라고 하였던 宣夜說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는 天은 左旋(東에서 西)하고 日月은 右行한다는 전통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이것

을 비판하였다. 왕충은 渾天說도 天이 땅 속(水中)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것과 天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비판하였다. 결국 천체의 구조에 대한 그의 생각은 天地가 평평하고 반듯한 모양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왕충은 天이 그릇을 엮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天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실제 天의 四方과 中央의 높낮이는 모두 같다고 주장하여 2차 蓋天說도 비판하였던 것이다.

천체의 구조에 이어 왕충은 天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 즉 일월식, 해의 출몰, 계절에 따른 낮의 길이의 변화, 해의 출몰과 남중함에 따른 해까지의 거리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왕충은 당시의 일식에 대한 여러 설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즉, (1) 달이 해를 먹어서 일식이 생긴다는 설명은, 만약 일식이 달이 해를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면 월식이 가능하도록 달을 먹는 것도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고 비판하였고, (2) 陽이 약하고 陰이 강하여 일식이 생긴다는 설명은, 일식이 생기는 晦朔에는 陰이 약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론과 같이 (3) 달이 해를 가려서 일식이 생긴다는 설명은, 만약 해와 달이 합하여져 달이 해를 가리게 된다면 처음에 가려지는 부분과 끝나갈 때 가려지는 부분이 마땅히 달라야 하는데, 실제로 일식을 보면 가려지는 부분이 일정하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왕충은 일월식에 대한 당시의 모든 설명을 비판하고 일식과 월식은 모두 해와 달이 스스로 빛이 줄어들어 생긴다고 하면서, 일식은 41.2개월마다, 월식은 180일마다 일어난다고 하였다.

해가 출몰하는 현상과 계절에 따라 낮의 길이가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한 왕충의 해석을 살펴보면, 당시 이런 현상들을 陰-夜-冬과, 陽-晝-夏로 연결지어 음양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그는 밤(陰)에 불(陽)을 들고 있어도 불이 잘 보인다는 경험에서 陰氣중에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고 하였고, 또 겨울에 해가 東南쪽에서 떠서 西南쪽으로 지는데 東南과 西南이 모두 陰이 아니므로, 해가 陰으로 출입한다는 말도 틀렸다고 하였다.

왕충은 해가 출몰할 때와 남중할 때에 따라 해가 가깝고 먼 현상도 설명하였다. 이 현상은 (1) 사물의 遠近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해가 출몰할 때는 크게 보이므로 가깝고 남중할 때는 작게 보이므로 멀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2) 해의 출몰시는 춥게 느껴지므로 멀고, 남중시는 따뜻하므로 가깝다고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설명에서 왕충은 후자가 옳다고 하였다. 그는 대나무 막대나 사람을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 놓고 밑에서 올려다보면, 바로 머리 위에 가까이 있을 때는 작게 보이지만 멀리 옆에서 보면 크게 보인다는 것으로, 해가 남중할 때 가깝고 해가 출몰할 때는 멀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천체의 현상을 설명하였던 왕충은 地上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먼저 춥고 따뜻한 것의 변화를 군주의 행위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던 것에 대하여, 그러한 변화는 人君과 관계가 없고, 다만 계절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또 堯와 湯과 같은 聖君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홍수와 가뭄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지 정치의 잘못에 따라 나타난 異常현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왕충은 祈雨祭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물론 그는 자연계에 있는 비는 마치 인체의 눈물과 같은 것이어서 사람이 원한다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서 비를 원하여도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우제를 일종의 禮(雩祭)라고 보아 人君의 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기우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왕충은 비를 지상의 약간 높은 지점에서 내리는 지상의 현상임을 말하면서, 구

름이 변하여 비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왕충은 雷를 太陽의 氣, 또는 火氣라고 보고 陽氣가 많은 계절(여름)일수록 雷가 많다고 하였는데, 雷가 火氣라는 증거로 鑄造할 때 사용하는 뜨거운 불에 한 잔의 물을 부어보면, 증기가 나오고 우뢰와 같은 소리가 생기며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몸을 태운다는 것을 들었다. 雷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보고, 天이 인간을 譴告하기 위해 일으킨 재이가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寒溫, 홍수, 가뭄, 雨, 雷 등 일반적으로 재이로 받아들여졌던 몇가지 자연현상에 대한 왕충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런 현상 모두를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믿음인 譴告說 혹은 災異說을 부정하려는 그의 목적과 부합되는 설명이었다. 그는 “天道는 자연스럽고 無爲인데, 만약 사람을 譴告한다면 곧 有爲이고 自然이 아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 IV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왕충은 天의 초자연성을 부정하면서 천인감응설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왕충은 먼저 天이 인간에 感應하기 위해서는 天이 입과 눈과 같은 감각기관을 가진 有爲의 존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天에는 그것들이 없으므로 天은 自然無爲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天이 입과 눈을 가진 존재라 해도, 天과 인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 天과 인간은 서로 다른 종류이므로 서로 말이 통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天은 인간의 뜻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천인감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天本人末’의 논리로도 天이 인간에 감응할 수 없음을

을 주장하였다. 결국 왕충은 “天이 사람의 말을 듣고 善惡에 따라 吉凶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릇된 말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왕충은 인간을 物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새로운 天人關係를 제시하였다. 고대중국에서는 천신숭배사상 이래로 인간은 天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었다. 예를 들어 孔子와 孟子에서와 같이 天이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윤리적 근거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도 인간은 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며, 道敎에서도 인간은 단지 天의 道理(天道)에 따라야 하는 존재이었을 뿐, 天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그리고 天을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을 때에도 인간은 계절과 기후의 변화 등 天에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알맞게 행동하는 존재이었을 뿐, 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天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던 인간의 위치가 荀子에 이르러 새롭게 변하였다. 순자는 “天人之分”을 주장하여 天에 대하여 인간의 職分을 명확히 하고 인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인간이 天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대의 천인감응설에서는 氣를 매개로 인간도 天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天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인간의 위치가 적극적인 위치로 변하였던 것이다.

왕충은 天과 人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인간의 근원으로서 天을 인정하였고 인간의 존귀함도 인정했지만, 인간을 단지 物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여 인간은 일단 태어나기만 하면 天과는 분리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天人分離는 天의 초자연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天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